

실내마스크 해제 본격 논의...백경란 “내년 1~3월 사이”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명확해” “美 교내 마스크 해제 뒤 확진자 2배 증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확진자가 증가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지난 2월 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을 해제하면서 6월까지 2개 학군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이 기간 72개 학군의 학생 29만4084명 및 교직원 4만65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해제 학군에서 15주 동안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1000명당 66.1명에서 134.4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새해엔 실내서 마스크 벗을까’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 “한파·빙판길 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광주시는 한파와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7일 밝혔다.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 특보를 발령한다. 최근 5년(2017~2021년) 간 지역 평균 한파 특보는 1.6회 발생했다. 한랭질환자 7.6명, 수도계량기 동파 384건이 발생했다.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과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외출할 때는 장갑·목도리·모자 등 방한용품 착용해 신체온도를 유지하고,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배관은 현 옷 등 보온재로 감싸주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비나 눈이 도로에 스며들었다가 얼어붙어 생긴 살얼음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겨울철 운전자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역에서는 도로 노면에 서리나 결빙이 있는 상태에서 29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26%가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발생, 출근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터널 출입구·비탈면 구간·다리 위 도로·그늘진 굽은 도로 등 온도 교차가 크고 도로 결빙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곳을 운행할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서행하고 차선 변경·급제동·급출발을 피해야 한다. 김재환기자

몰염치 전화금융사기범 항소했다 ‘된서리’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국인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을 요구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마약도 투약한 점,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수사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15차례 돈을 빼내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채 조직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달한 돈의 2.7%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단은 악성코드가 설치된 토탈투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국내로 발반입된 마약을 사들여 2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공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오유나기자

여수서 80대 끼임사고로 사망...경운기에 옷끼여

6일 오후 1시 13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야산 인근 밭에서 A(85)씨의 신체 일부가 경운기 내 설비에 끼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 시동을 걸자마자 전동 벨트에 옷자락이 끼면서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